여권 '제3지대론' 가시화…김종인 '야권 연대론' 군불때기

"대선 절대강자 없다"…난무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

이재오·정의화 신당 움직임
손학규 중도 인사 잇단 회동
국민의당 '중간지대 플랫폼'
반기문·안철수 연대설까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과거처럼 확연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절대강자가 없다 보니 각종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정치권에 떠돌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존재하는 각 정파의 이해와 화학적 결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짝짓기'를 하고 세를 불리는 정계개편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3지대론'이다. 여야의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친문(친문재인)계를 배제한 나머지 중도세력들이 연합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형태다. 친박과 친문세력의 전횡에 식상한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중도세력을 한데 모으자는 취지다. 양 극단이 집권할 경우 발생할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비교적 열세로 평가되는 여권을 중심으로 이미 제3지대 정당 창당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기 전 비박(비박근혜)계의 맏형으로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이 이념과 지역 갈등 혁파를 기치로 내건 중도 정당인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선 전초 기지인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제3지대론'의 중심에 서 있다. 강진에서 칩거 중인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장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중도 성향의 인사들과 회동하며 제3지대론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대선 전이 본격화하고 여야 모두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해질 경우 기존 정당을 이탈한 세력이 나올 경우 이 제3지대론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제3 지대를 주창한 국민의당도 선두 주자로서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될 것임을 자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중간지대 플랫폼'인 국민의당에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비주류들이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계개편 시나리오에는 '야권 연대론'도 있다.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민주 비주류가 야권 정당들을 한데 모을 가능성을 뜻한다.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김 전 대표는 최근 손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 지사에 이어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야권과의 협치를 실험 중인 남경필 경기 지사 등을 잇달아 만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호응하지 않고 있어 당장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돼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여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심심찮게 언급된다. 위기를 느낀 여권이 반 총장을 영입하고 안 전 공동대표와의 단일화를 추진해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시나리오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오른쪽)와 민주당 김민석 대표(앞줄 왼쪽)가 1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에 밀리면 대권 없다"…野 잠룡들 분주한 연휴

1년전 추석이 분수령…지지율 촉각
고향·지진 현장 등 찾아 민심 잡기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추석 이후 여론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절을 계기로 모아진 민심이 향후 대선 정국의 흐름을 따져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 직전 해의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주자가 모두 대권을 거머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최소한의 지지율을 확보해야만 대권 도전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양산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난 뒤 16일에는 부산지역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부였던 송기인 신부 등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부터는 서울을 오가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와 월성 원전, 경주 방폐장, 학교 시설 등을 찾았다. 이어 추석 당일인 15일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 부모님과 지낸 뒤 주말에 상경, 연휴 마지막날인 18일에는 가수 전인권씨의 초대로 한 콘서트에 참석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정계 복귀의 분위기를 다졌다. 손 전 대표는 강진에서 상경,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가까운 주변인사들과 만나 정계복귀의 구체적 시간표와 이후 행보에 대해 막바지 고민에 들어갔다. 손 전 대표는 20일 강진군 초청으로 강진아트홀에서 열리는 '강진다산 강좌'의 강사로 나선다. 손 전 대표는 이 강좌에서 2년여 동안 강진에서 머물면서 본 '강진 희망'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광화문의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찾은 뒤 이후에는 공개 일정 없이 서울에서 머물면서 정국 구상에 들어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쪼개 지역을 방문하며 대권 도전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다음달 중순 발간을 목표로 집필 중인 저서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김부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준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원외 민주당과 통합…약칭 '민주당'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18일 통합을 선언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약칭을 민주당으로 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당의 통합을 선언한다"며 "우리의 통합은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이며,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 출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통합은 집권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하나의 민주당으로 민주세력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마음과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꼭 61주년이 되는 날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2014년 9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추 대표가 민주당 창당 61주년에 맞춰 야권의 상징성을 띤 당명을 지닌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것은 본격화하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의 야권 적통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범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추 대표는 "해공 선생은 우리 당의 뿌리로, 우리는 신익희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의 후예"라며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김민석 동지도 백의종군의 자세로 참여했다. 민주개혁세력이 더 큰 통합을 위해 함께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란 이름이야말로 야당의 상징이고 모태이고 정체성이라고 했다"며 "저를 비롯한 몇 명이 민주당을 고수한 이유는 민주당 역사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통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핵심관계자는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칭을 민주당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솔솔 부는 세대교체론…'50대 기수론' 대선판 흔드나

여야 젊은 잠룡들 일제히 용틀임
시대적 화두·비전·실행력이 관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50대 기수론'이 대선구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각종 유력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5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선 '잠룡'들로 꼽히는 유승민(58) 나경원(53) 의원, 남경필(51) 경기지사, 원희룡(52) 제주지사, 김기현(57) 울산시장 등이 모두 50대다.

야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58) 의원과 안희정(51) 충남지사, 이재명(52) 성남시장 등이 50대 대선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선 분위기가 서서히 일면서 세대교체론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유 의원과 남 지사 등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 지사가 들고나온 모병제에 대해 유 의원이 비판을 가하며 여권에선 50대 주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더민주에선 김 의원과 안 지사, 이 시장 등이 대권 도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경쟁 대열에 뛰어들 시점을 찾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일찌감치 총선 전부터 대선주자로 행보를 보여온 여권의 오세훈(55) 전 서울시장과 야권의 안철수(54)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50대다. 박원순(60) 서울시장도 이제 막 60대로 접어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18일 "10여년 동안 국정이 난맥상을 보여오면서 국민의 눈 높이는 높아진 상태"라며 "나이보다는 시대적 문제에 대한 공감능력과 비전, 실행력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사범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0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7	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6. 9. 12(월) ~ 21(수) •전형일 : 2016. 9. 30(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전형일 : 2017. 1. 12(목)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11. 1(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목회학과(D.Min.)	2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